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19. 1. 14(월) 14:00~17:00 이음센터 5층 이음홀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목 차

■ 인사말	1
■ 발제 1. 장애인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선택과 집중, 지역 확산을 중심으로	5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 전문위원)	
■ 발제 2.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방향	22
오세형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운영팀장)	
■ 토론 1	39
황상훈 (기분좋은 QX 대표)	
■ 토론 2	42
배은주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이사장)	
■ 토론 3	48
김지수 (극단애인 대표)	
■ 토론 4	51
변순영 ((재)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일 정

좌장 김정이 (지식에너지연구소 대표)

구분	시간	내용	비고
등록 및 개회	13:30~14:00	등록 및 접수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	
	14:10~14:20	내빈 및 참여자 소개	
발제	14:20~14:50	장애인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선택과 집중, 지역 확산을 중심으로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 전문위원)
	14:50~15:20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방향	오세형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운영팀장)
	15:20~15:40	쉬는 시간	
토론	15:40~15:50	토론 1	황상훈 (기분좋은 QX 대표)
	15:50~16:00	토론 2	배은주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이사장)
	16:00~16:10	토론 3	김지수 (극단애인 대표)
	16:10~16:20	토론 4	변순영 ((재)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16:20~17:00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17:00	폐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안중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그 첫 발걸음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공청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이음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예술가 창작 지원, 인재 발굴 및 육성, 기획사업 등 장애인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나 공공의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와 지원이 커지고 있고 이에 맞게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체계화 시켜야 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 예술가들이 원활하게 창작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에 힘쓸 것이며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질 수 있는 장애인 예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적극적인 발전방안과 의견을 제시하여 장애예술의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문화예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14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안 중 원

발제

1. 장애인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선택과 집중, 지역 확산을 중심으로
2.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방향

발제 1

장애인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선택과 집중, 지역 확산을 중심으로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 전문위원)

1

들어가며

장애예술인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대해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73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각종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공적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1996년부터 ‘장애인문화향수권신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추진되기 시작했다.

장애인 예술 관련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장애인 체육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된 이후부터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지원’ 사업이 장애인에게 확대되고(200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이를 반영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07), 문체부 내에서 ‘장애인체육과’의 ‘장애인문화 체육과’로의 확대 개편(2009), 장애인예술 관련 업무의 예술국 이관(2013)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소수집단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¹⁾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은 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복권기금사업에 <장애인 문화예술접근성 확대사업>이 편성되면서부터이다. 2008년에는 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국고에서 처음으로 5억 원을 지원하여 독립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2010년에는 복권기금사업에 장애인 창작 및 표현 활동지원이 별도 분리되었고 국고사업은 <장애인 문화예술향수사업>으로, 복권기금은 <장애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영컨퍼런스 자료집 <다양성과 포용성 예술과 장애>, 2016.12

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다가, 2014년부터는 국고사업으로 일원화되어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1〉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공모)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획)
국고 (문화예술향수)	1,200	1,300	1,300	1,550	2,550	2,550	2,150	2,067	2,350	4,200
그 외 (복권기금, 체육기금)	400	1,000	1,000	1,000	-	-	-	-	570	560
계	1,600	2,300	2,300	2,550	2,550	2,550	2,150	2,067	2,920	4,760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은 장애인체육의 한 부분으로 출발하여 장애인 향유정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일반 문화예술지원과 달리 처음부터 향유정책이 중심이 된 것은 장애예술인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초기에는 일반 문화예술단체 혹은 예술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향유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형태가 지원사업의 주류를 형성했고, 장애인 예술단체 혹은 장애예술인의 역량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직 미흡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발전하면서, 장애인 예술계의 역량도 초기보다 강화되었고 이제는 향유자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많다. 특히, 2015년 10월 장애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으로 좀 더 전문적인 지원 정책이 가능해졌고, 선진국과의 교류도 활발해짐에 따라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인식의 폭이 확장된 점이 자연스럽게 정책의 전환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장애인 예술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제기된 과제들은 국립 장애인 문화예술센터의 건립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과, 장애인식 개선과 연계된 환경개선, 정보 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문화향유활동의 증진 등이었다.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역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공모사업 지원 예산이 대부분 장애인 문화향수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있고 예산 규모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이러한 추세를 보여준다. 하지만, 〈표2〉 2019년 공모 지원사업 예산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29억2천만 원에서 47억 6천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8억 원 증액되었고, 창작분야에 유망예술단체 집중육성 지원이 5억 원 신규로 편성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2〉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예산 변동 현황(2018/2019)

(단위 : 백만 원)

'18년		'19년		예산 증감	비고
사업유형	예산	사업유형	예산		
■ 창작 활성화 지원	750	■ 창작 활성화 지원	1,000	250	증액
■ 문화예술 향수 지원	800	■ 문화예술 향수 지원	900	100	증액
■ 배리어프리 제작 지원	200	■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	200	-	향수 통합 동호회 분리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400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600	200	증액
■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200	■ 지역 문화예술 거점 지원	1,000	800	증액
■ 국제교류 활동 지원	570	■ 국제교류 활동 지원	560	△10	-
-	-	■ 유망예술단체 집중육성 지원	500	500	신규
계	2,920		4,760	1,840	-

2019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 새로운 과제로 등장한 유망예술단체 집중 육성(신규)과 지역 문화예술 거점 지원(확대) 부문은 그동안 여건 미성숙 등의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던 창작 지원분야의 선택과 집중 방식 도입과, 지역문화 시대를 맞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본격적인 지역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글은 장애인 예술정책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이 두 가지의 관심 영역과 연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의 창작 활동 증진을 위해 전문단체 육성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와 '장애인 예술활동의 지역 확산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방식, 지원체계는 무엇인가'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선택과 집중 - 유망 장애인예술단체 집중 육성

2016년 12월, 한영교류의 해를 맞아 이루어진 한국 및 영국의 예술위원회간 공동 개최한 한영컨퍼런스에서는 문화다양성과 포용성, 예술과 장애를 한 테마로 다루었는데, 우리나라의 장애인예술정책에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우선 장애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문화다양성의 시각에서 바라보았고, 장애인 예술의 국가적 지원프로젝트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수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의 역사가 짧고 장애인 예술단체가 열악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장애인 전문예술단체의 육성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지원정책은 창작지원과 예술인복지 지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수월성을 중심으로 한 소수 예술단체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은 거부감을 불러오기도 한다. 비장애인의 일반 창작지원에서도 선택과 집중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하물며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꾸려가야 하는 장애인 예술활동에서 특정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장애예술인과 단체들에 대한 창작 지원은 예전에 비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으로 장애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기존의 예술위원회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에서도 지원 기회가 열려 있다. 그러나 소액 다건 위주의 지원방식이 주류인 상황에서는 사업의 성과가 특화되지 않고 유사한 레퍼토리를 양산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은 그동안 양적으로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적 미학 창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지원프로그램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국 예술위원회의 한 보고서에서 맥마스터는 “문화에서의 수월성은 예술적 경험이 한 인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할 때 발생한다. 훌륭한 문화예술 경험은 인간 삶의 근원의 문제이다”라고 정의한바 있다²⁾. 장애인 문화예술의 창조적 작업에 대한 경험은 무엇보다 인간 삶의 근원을 다루고 남다른 감동과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이다.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한 수월성을 높이고 특유의 고유한 미학적 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 예술분야가 독특한 미학과 예술적 표현을 통해 당대의 대표적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McMaster, 2008, Supporting Excellence in the Arts: From Measurement to Judgement,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Uk.

2-1 국내외 주요사례 분석

장애인 유망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해 참고가 될 만한 지원사업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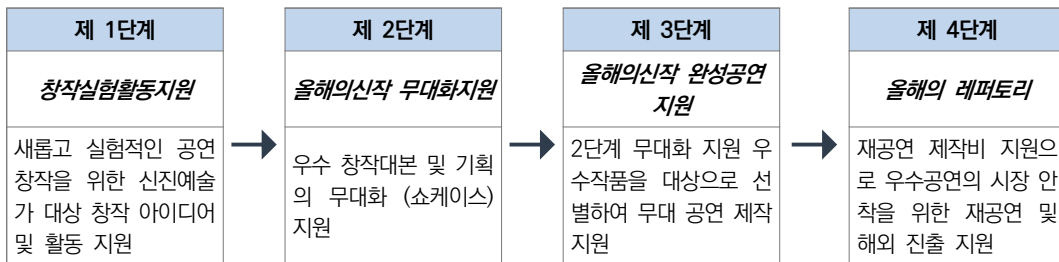
1) 국내 사례

① 공연예술창작산실 (92억 원, 연극·음악·무용·전통예술·창작뮤지컬 등)

예술위원회는 2009년 이후 소액다건 형태의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을 지역문화재단으로 이관하고 중앙 차원에서는 선택과 집중형의 차별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창작산실 사업이다. 특히 창작산실은 단계적 지원을 표방하는데, 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오페라 등 공연예술 장르의 ‘창작실험활동 지원-신작 무대화(쇼케이스)-신작 완성공연-재공연’의 4단계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예술단체가 단계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단순한 공연제작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술위원회 산하 아르코·대학로극장 무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무대스텝과 관객개발, 홍보 등을 통합 지원하는 등 창작자가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표3〉 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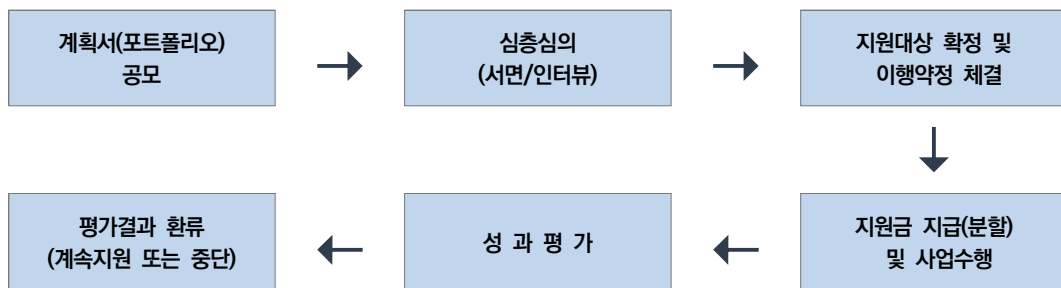
② 공연예술전문단체육성지원(2006~2010; 45억 원, 54개 단체 지원)

문예진흥기금사업 중 최초의 다년간 지원프로젝트로서, 창작능력, 인적구성, 운영 시스템의 전문성 등 여러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연예술 전문단체를 다년간 집중 지원하여 단체의 예술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제작 시스템의 전문화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내 공연예술단체(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분야)로서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연간 5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까지 3년간 지원협약서에 의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공연장 대관료, 무대제작비, 홍보비, 조명·음향 디자인비, 출연(연주)료, 작품료, 저작권료, 행사 보조요원 수수료 등 공연제작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체를 지원하며, 특히 정규단원, 기획행정인력의 인건비 등 단체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전체 지원금액의 20%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단체 운영과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표4〉 공연예술전문단체육성지원 사업추진절차



또한 지원조건으로 유일하게 분야별 공연개최 및 창작발표 이행조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5〉 공연예술전문단체육성지원 이행조건

분야	지원대상단체	필수 지원(이행)조건	비고
음악	전문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등 전문단체	연간 3회 이상 연주회 개최 (이 중 창작초연 2개 작품 포함)	오페라전문단체 제외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무용단	연간 편수에 관계없이 4회 이상 공연 (3년간 창작초연 2개 작품 이상 발표)	-
연극	연극분야 전문극단	연간 2편 이상 공연(편당 15일 이상) (3년간 창작초연 2개 작품 이상 발표)	뮤지컬전문단체 제외
전통 예술	국악예술단, 국악합주단, 전통연희단, 전통무용단 등	연간 3회 이상 공연 개최 (이 중 창작초연 2개 작품 포함)	창극전문단체 제외

③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2019년 신규사업; 54억9천만 원, 39개 단체)

2019년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은 위의 공연예술 전문단체육성지원사업의 새로운 버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국회 예결위에 제출된 초안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대상은 국내 공연예술단체(음악, 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단체)로서 설립 5년 이상, 최근 3년간 4건 이상(초연 2편 이상)의 공연 발표 실적이 있는 단체로, 지원 규모는 단체별 연 1억 원~2억 원씩 3년간 지원하며 매년 성과에 대한 평가·환류를 통해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참고로 지원예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6〉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지원항목

프로젝트 운영비 (지원금의 70% 이상)	단체 운영경비 (지원금의 30% 미만)
○ 공연장 대관료 및 연습실 임대료, 무대제작비, 홍보비, 조명·음향 디자인비, 출연료, 작품료, 저작권료 등 공연 제작 직접경비 ○ 공연제작을 위한 시범공연(트라이아웃, 쇼케이스, 낭독 공연 등) 직접경비 ○ 창작워크숍, 관객개발 해외진출 및 작품유통 연구조사 직접경비 일부	○ 정규단원, 기획행정인력 등 직원 인건비 ○ 사무실 임대료, 단체소개 홍보물 제작비 (개별공연에 대한 홍보물이 아님), 예술단체 홈페이지 제작비 등 단체 운영경비 ○ 단체운영·홍보마케팅·배우역량강화 교육비 (대표자, 정규단원, 기획행정인력에 한함) ※ 자산취득비 불가 : 기자재구입비, 부동산매매 등

2) 해외사례

① 예술기관(단체) 다년간 지원 (영국, National Portfolio Organization 2015-2018)

예술의 발전 및 국민의 문화예술향유 증진을 목표로 잉글랜드 전역의 대표적 예술기관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2018년 중 663개의 기관 및 단체를 지원했다. 지원받는 기관은 3개년 계획을 제출한 후 2년이 지나면 리뷰(review)를 실시한다. 또한, 매년 리뷰를 통하여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정·보완된다. 영국 예술위원회(ACE)는 매년 새로운 기관을 포함시킬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항이다.

지원대상 선정은 신청단체가 지역의 경우 지역위원회를 통해 신청하고 지역위원회는 지원 대상단체를 선정하여 해당 예산을 중앙위원회에 올리면 중앙위원회에서 각 지역으로 배분하게 된다.

② 주요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Major Performing Arts companies)

호주 정부의 주요공연예술(MPA) 지원 프레임워크에 의거한 집중 지원사업으로 호주 예술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의 선정과 집행을 맡고 있다. 연간 지원예산 규모는 총 1억 9백만 호주달러(한화 약 934억 원)로서 무용단, 극단, 오페라단, 오케스트라단, 실내악단, 서커스단 등 호주의 주요 공연예술단체 28개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단체는 4년간 지원하고 평가에 의해 지속 지원여부 결정하며 자격 조건은 최근 3개년도 평균 연 수입 160만 호주달러(한화 약 14억 원) 이상인 단체로서 예술적 수월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소·중규모 예술단체 다년지원사업(Multi Year Core Program Funding)

예술단체가 안정된 창작환경 속에서 새로운 창작품 개발·제작, 또는 플랫폼(워크숍, 레지던스 프로그램, 문화예술행사, 페스티벌 등) 기획·운영하며 내부역량을 제고하여 자생력 있는 전문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4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요단체지원사업(Key Organizations Program)을 2016/2017년도에 개편한 것으로 현재 호주예술위의 주요 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연간 지원예산 규모는 2,900만 호주달러(한화 약 260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소·중규모 예술단체이다.

④ 포용적 예술 지원사례 - 영국, 언리미티드(Unlimited)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은 장애인을 포함해 예술에 소외되기 쉬운 이들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활동으로,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도 참여에 제약이 없는 워크숍, 트레이닝 프로그램, 프로젝트들을 기획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영국, 호주 등의 포용적 예술로 표현되는 장애인예술정책은 의학적 관점 혹은 향유의 관점에서 벗어나 미학적 접근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관점을 떠나 예술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영국의 포용적 예술 프로그램인 언리미티드(Unlimited)는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 예술가 커미셔닝 프로그램으로, 뛰어난 예술가들이 뛰어난 예술을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한다. 기존 예술가나 신진 예술가의 활동뿐 아니라 국제적 협업까지 지원하는 언리미티드는 현재 뮤지컬: 보조자살(Assisted Suicide: The Musical), 유쾌 공포증과 TV고전 파트1 (Cherophobia and TV Classics (part one))등의 작품을 지원 중이다. 또한 사우스뱅크 센터와 트램웨이의 언리미티드 페스티벌을 통해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셰이프(Shape)와 아츠어드민(Artsadmin)에 의해 설립된 언리미티

드는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다양성 이니셔티브와 함께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웨일즈예술위원회, 사우스뱅크 센터, 트램웨이, 스피릿오브2012, 영국 문화원과 협업을 펼치고 있다.³⁾

⑤ 장애인 전문예술단체 사례 - 극단 날라갓/ 중국장애인예술단

이스라엘 시청각장애극단 날라갓(The Nalaga't Deaf Blind Theatre Ensemble)

시청각장애극단 날라갓(The Nalaga't Deaf Blind Theatre Ensemble)은 2002년 시각, 청각 장애가 있는 배우들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프로페셔널 장애인 극단으로, 이스라엘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설립되었다. 비영리단체로서 정부와 기업, 민간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이 극단의 공연장인 날라갓센터(The Nalaga't Center)에서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카페도 있어 국내외 방문자들이 특별하고 감동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 날라갓센터와 그 극단은 장애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례로서 런던국제연극제(LIFT) 공식 초청작, 캐나다 스위스, 미국 장기 투어 등 자국과 해외에서 많은 공연 요청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개막작으로 초청되어 11명의 중증 장애 배우들이 실제 빵을 구우면서 각자의 순수한 꿈과 순간의 기억들을 그려낸 '빵 만으로 안돼요(Not By Bread Alone)'를 선보여 큰 반향을 일으킨바 있다.

중국 장애인예술단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으로 구성된 중국 장애인예술단은 1987년에 창단, 1989년 미국 워싱턴의 제1회 국제특수예술제 참가하여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2002년 중국장애인연합회소속단체로 되어 이후 독특한 예술세계를 간직한 공연을 탄생시켜 매년 10개국 이상을 순회하며, 170회 이상의 공연을 펼치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07년에는 유네스코 평화예술가로 지정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적의 드라마'라는 칭송을 받았으며 특히 21명의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무용단이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중생을 두루 살피는 관음보살을 형상화한 '천수관음' 무대는 큰 반향을 일으키며 대표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영컨퍼런스 자료집 <다양성과 포용성 예술과 장애>, 2016.12

2-2 유망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의 설계

이상으로 국내외 예술단체 집중 육성사업의 여러 모델을 살펴보았다. 특정 프로젝트가 아닌 전문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의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지원의 설계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 우선 일회성 사업 중심이 아니므로 연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3년 이상 중장기 비전을 보고 다년간 단계적 지원을 통해 단체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형식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다년간 지원의 성과가 예술단체에 콘텐츠로 남아 단체의 고정 레퍼토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지원 방식에서도 과감하게 운영비 특히 상근 기획자 등의 인건비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집중육성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진입장벽이 높아 신생 단체의 신규 유입이 어렵다는 점과, 소위 소수의 '잘나가는' 단체가 사업을 독식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일정부분 참신하고 실험적인 예술단체의 선정을 보장하고,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세밀한 설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 확산 - 장애인 문화예술 거점 지원

3-1 지역연계사업 추진체계 사례 분석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또 하나 특징은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의 예산이 지역 문화예술 거점 지원으로 바뀌면서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업 추진방식을 점검하고 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교육·공간 조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주체를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 진행체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예술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 중 지역과 연계하여 각기 독특한 추진체계를 가진 사업들(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다양성사업,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 작은미술관 운영지원,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등)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것이다.

① 통합문화이용권사업(문화누리카드)⁴⁾

문화복지 분야의 대표적 정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저소득계층의 문화·여행·스포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바우처(voucher) 방식을 활용한 정책사업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 및 우선 돌봄 차상위계층 약 250만 명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하나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연간 1인당 7만원(2019년 8만원) 범위에서 구분 없이 자유롭게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카드 등록자수가 150만 명을 넘었고, 연간 예산이 1천억 원이 넘는 문화예술분야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구인 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이 역할 분담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각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세부운영계획 수립, 사업운영 총괄 및 시스템 운영·관리를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를 매칭하고 카드발급과 지역별 사업을 총괄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주관처를 두어 사업비 집행 정산 및 홍보 업무를 진행한다.

〈표7〉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추진체계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2018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침

4) 양혜원·박종웅(2015).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여행·스포츠관람)사업 성과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② 문화다양성사업 - 무지개다리사업운영지원 (27개 주관처, 25억8천4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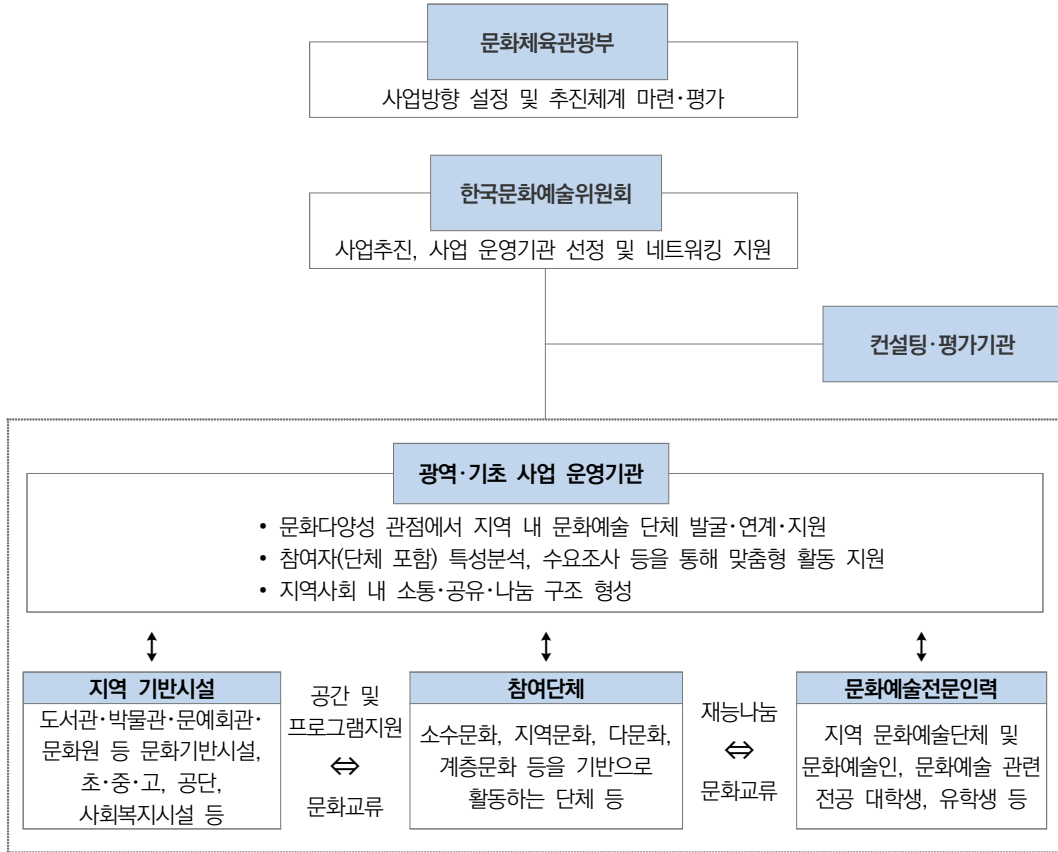
문화다양성정책은 2020년대 5대 메가트랜드에 선정될 정도로 향후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업의 영역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탁하여 진행하는 문화다양성 증진사업 외에 이렇다 할 정책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무지개다리사업은 문화다양성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소수문화, 세대문화, 하위문화, 지역문화, 다문화 등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문화주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여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중앙과 지역의 지원체계를 통해 사업이 운영된다. 사업은 주로 지역주관처에서 진행하는 재교부사업과 컨설팅 지원 및 평가, 네트워크 워크숍,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구축 사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지원방식은 다년간(3년)으로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매년 사업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기년도에 대한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속지원 결정의 경우에도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내용과 예산 심의에 따라 지원범위와 금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무지개다리사업의 추진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예술위원회는 사업 총괄 및 네트워킹·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각 광역·기초 사업 운영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과 단체를 발굴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018년 사업은 공모를 통해 문화다양성 확산에 기여할 역량 있는 광역·기초 문화재단 및 공공문화기관 27개 기관·단체가 주관처로 참여하여 1개 기관 당 최소 40백만 원 ~ 최대 150백만 원 지원한 바 있다.

〈표8〉 무지개다리 사업 지원 추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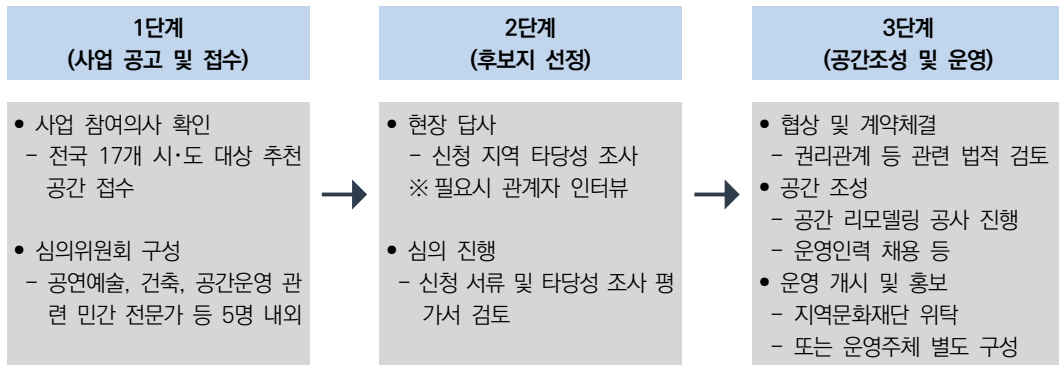


③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사업 (61억 8천만 원/ 2018년 신규 3개소 조성)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시·도)와의 협력을 통해 공간 조성 및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광역시도별 각 1개씩 조성을 목표로 공모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2018년 현재 공연예술연습공간이 조성된 지역은 14개소로 주로 연초 제조창(충북 청주), 폐교(강원 춘천), 가압펌프장(인천), 주민센터(전북 전주), 보건소(울산) 등 다양한 시설이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시설로 탈바꿈했다. 시설의 조성 주체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참여 신청에서 선정 후 리모델링 공사까지 직접 수행하고 실제 운영은 대개의 경우 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이 맡는 것이 보통이며, 광주 소촌아트팩토리와 같이, 시에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표9〉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사업 추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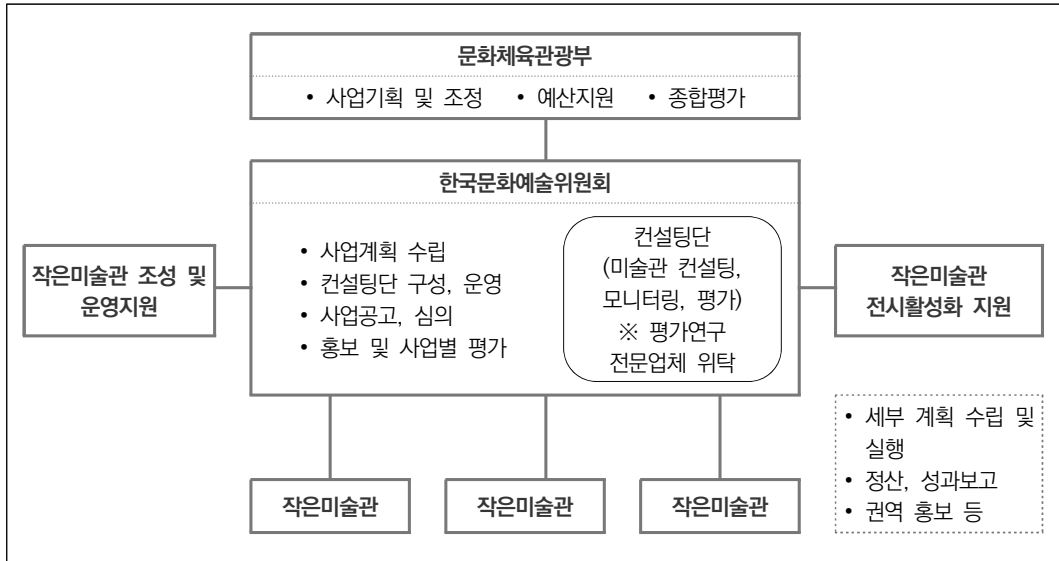


④ 작은미술관 운영지원 (7억 원 신규3, 지속3개소 등)

작은미술관 운영지원사업은 시각예술 소외지역의 유허공간과 기존 전시시설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시각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앙-지역 간의 협업을 통해 해당 지역 유허 공공공간을 미술공간화하고 전문인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체제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작은미술관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자생력 확보차원에서 자체예산의 재원매칭(신규조성) 및 3개년 지원체계 운영되는데, 1차년도는 7천만 원까지, 2차, 3차년도에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하여 1개소 기준 3년간 총 1.7억 원까지 지원된다. 작은미술관 조성비(공간 리모델링) 및 시설 관리 운영비를 위한 지원신청단체 자체 예산 혹은 협약기관(지자체, 공공기관)의 자체 예산 최소 3천만 원 편성과 기획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

〈표10〉 작은미술관 운영 지원사업 추진 체계



⑤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 (3억5천만 원, 10건 내외)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공공-민간단체 간 문화예술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문화예술 후원을 확대하고 협력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천만 원 이상, 사업비 중 민간 후원금이 50%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한하며, 지원대상은 광역·기초 문화재단 및 기타 공공기관이다. 지원유형은 문화예술을 위한 사회통합,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살리기, 신진예술가 육성, 순수예술 창작지원 등이다.

〈표11〉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연도별 사업추진현황

(단위 : 백만 원)

년도	선정사업	예술위 지원	민간 지원	공공재단	총예산 규모
2014	8개	241	631	70	942
2015	15개	319	572	51	942
2016	6개	110	130	19	259
2017	11개	290	290	32	612
2018	11개	320	320	-	640
계	51개	1,280	1,943	172	3,395

3-2. 장애인문화예술 지역연계사업의 방향

이상으로 장애인문화예술의 지역 확산을 위한 지역연계사업의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지역연계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된 것은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매칭 예산을 확보하고 조성을 위한 시설 및 부지 확보, 리모델링 후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지역문화재단 등에 위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그 외 연구·교육, 행사 진행 등 프로젝트 운영은 문화재단, 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 (문화다양성 사업), 민간기업과의 협력에 의해 중앙과 지역문화재단, 민간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 등이 있다.

〈표12〉 지역연계사업의 유형별 검토

유 형	내 용	대표사례	장 단 점
① 지자체 주도형	지자체 주도로 매칭예산 및 시설확보, 리모델링 후 전문기관 위탁 운영	공연예술 연습공간운영	시설 및 매칭재원 확보 유리함
② 주관처 공모형	문화재단,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의해 사업주관처 선정, 지원	문화다양성사업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나, 시설 및 매칭재원 확보의 어려움 예상됨
③ 민간·공공 협력형	민간기업의 참여로 매칭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은 문화재단과 기업이 협력 운영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재원 확보 및 인식확산에 도움이 되나, 민간 참여의 지속성 유지 어려움

〈표12〉에서와 같이, 지자체가 주도형은 시설 및 매칭예산을 지자체가 나서서 확보할 수 있고 리모델링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므로 거점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별도의 매칭 예산 확보가 필요치 않은 경우, 전문 지원기관인 문화재단이나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주관을 선정하는 주관처 공모형이 안정적 사업추진과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다. 민간·공공 협력형은 민간의 참여와 재원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파급효과가 크고 인식확산에 도움이 되나, 민간 참여로 인한 사업의 불안정성이 우려된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거점 지원은 2018년도 시행된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에서 다년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를 발전적으로 이어받는 한편, 신규 사업의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위에서 제시한 지역연계사업의 유형을 참조하여 시설 리모델링, 매칭 여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검토하여 세부 사업방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맏으며

예술 지원정책은 크게 “창작과 향유”로 구분된다. 예술가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창작 혹은 창조는 예술가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반면에 향유정책의 핵심은 최고의 예술가가 출현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증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호 호환적 사고는 예술정책의 영역을 확장시켰고 창작과 향유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창작자와 향유자를 매개하는 문화기획, 문화시설 운영 등의 전문화가 주요한 문화정책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창작 진흥은 작품의 수월성(우수성)을 높임으로써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향유의 진작은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영국의 문화매체체육부 장관을 지낸 테사 조엘은 “접근성 대 우수성 논란은 아주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예술도 스포츠 같았으면 한다. 스포츠의 경우 접근성 확대와 우수성 제고가 동시에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지 않은가. 사실 스포츠인 들은 소수 재능 있는 이들의 올림픽 성공을 주말 레저 스포츠 확산에의 기여로 인식할 것이다. 실제로 스포츠 접근성을 넓히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킨다.”⁵⁾고 하였다. 우수성 증진과 접근성 확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의미에서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선택과 집중, 지역 확산에 주목하는 것은 장애인 예술정책의 발전과정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장애인 예술에는 그 자체로 인간의 애환과 삶의 체험이 녹아있다.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장애인 예술에 대한 우리의 철학과 지향을 반영하고, 수월성과 독특한 미학적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한다. 아직 요원하지만 적어도 그런 꿈을 꾸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간다면, 막연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조만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수월성을 지향한다 해도 이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를 미리 예단해 놓을 필요는 없다. 앞으로 기준에 맞는 신생 단체들이 발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잠재력과 역량을 가진 장애인 예술가들이 맘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좀 더 긴 안목으로 중장기 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향후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장애인 예술단체가 다수 출현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끝)

5) Tessa Jowell 〈정부와 문화의 가치〉, 영국 DCMS, 2004

발제 2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방향

오세형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운영팀장)

□ 배경 및 목적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주체적 예술 활동의 중요성 증가 및 관련 제도의 구비, 장문원의 설립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명을 개선하여 2018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개칭하여 운영 중임
- 거시적으로 정부의 새 예술정책 수립에 따른 장애예술의 방향 및 최근 발전하고 있는 해외 장애예술의 현황 등을 고려하고, 현실적으로는 예산증가에 따른 타당한 지원제도 설계, 현장의 변화 및 수요에 따른 합리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 지원사업의 규모는 예술위에서 장문원으로 이관 뒤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10억 원,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년도 사업성과를 검토하고 창작 및 교육 등 분야별 지원규모의 적절성, 신청 비중에 따른 장르별 분배,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은 중장기적인 과제와 단기적 개선이 혼종되어 있으나 창작활성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예술 육성 전략, 장애예술의 정체성을 반영한 프로젝트의 발굴과 함께 장애인 예술 활동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한 운영, 지역 주체 육성의 시급성과 지속성을 통한 기반 구축, 장애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향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새 예술정책(2018-2022) 장애인 예술정책 방향

- 2018년 TF를 통해 10개 분야의 새정부 문화정책을 수립하였고 소수자의 문화예술이라는 타이틀로 정리되기는 했으나 주요내용은 장애인 예술이었으며 독립적인 분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결과로 3가지의 추진과제와 13가지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음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장애인 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강화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비장애인 89.2%, 장애인 47.6%)하며 학력, 네트워크, 정보에서도 상당한 격차 존재
 - 주요추진과제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기반 조성, 문화예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예술활동 보조장비 개발
- 장애인 예술 창작 공간 및 교류 활성화 : 장애예술을 하나의 고유하고 창의적인 예술적 표현으로 인식하여 장애인 예술 특성화, 창작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다양성’의 핵심적인 문화적 자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창작에 초점을 맞추고 수월성 제고와 사회적 확산을 위한 지원 필요
 - 주요추진과제 : 장애인 예술시설 건립 및 운영, 장애인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예술 창작 활성화, 예술 매개자 및 협력 예술가 육성, 남북 교류 및 국제 네트워크 확대
- 장애인 예술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주요추진과제 : 장애인 참여 사회적 예술 활성화, 지역에서의 소수자 예술 활성화 플랫폼 구축, 장애 예술의 사회적 인식 및 정책 기반 강화
- 새 예술 정책의 추진 내용 중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가장 관련한 방향성은 창작활성화 및 지역특성화 사업이며 창작활성화에서 제시하는 관점은 장기적으로 지원사업의 방향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사점을 드러내고 있음
 - 영국의 ‘언리미티드 장애인 예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영국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예술을 하나의 브랜드로 개발하여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발전시키고 있음. 이를 통해 장애인 예술에 대한 미학적 성취와 특성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 장애인 예술 특성화 : 고유한 장애인 예술을 특성화할 필요가 있음. 한 장르의 고유한 미학에 대한 고민 없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은 정체되기 십상임. 장애인 미학과

예술 표현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장애인의 차이를 문화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장르로 확립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지원사업의 변화라 함은 현재는 모든 장르를 동등한 중요도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상은 장애인의 접근성, 표현성, 수월성 등에서 장르적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 또한 장애예술의 미학과 표현이 직접적인 당사자성의 이야기가 잘 드러나는 연극, 문학, 영상 분야는 시각예술, 음악 등의 추상적 예술언어의 분야와 간극이 크므로 이러한 차이를 수용하는 체계 개발이 필요함
- 장애예술 창작활성화와 함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장애예술 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기본적인 예술 활동을 위한 플랫폼 또는 거점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원과 기반 확보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애인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칭 '장애인 창작센터'를 권역별로 설치, 운영] 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아래의 추진과정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 문화재단, 유관기관 등 행정주체와 장애 예술가들이 예술창작, 향유, 교류, 교육이 이루어지는 복합공간 구축(지자체의 유휴공간을 활용)
 - (단계별 추진) 거버넌스 구축(정부, 지자체, 예술단체) - 공간조성(리모델링) - 전략수립 및 시범사업 - 단체입주 및 운영
 - (특성화) 지역별로 활성화된 공예, 디자인, 융합예술 등의 분야를 연계하여 지역의 전문 예술인력 집중 육성
 - 2019년 2~3개소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
- 이 외에 지원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문화예술교육 특성화, 예술 매개자 및 협력 예술가 육성, 국제 네트워크 확대 등이 있음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현황 분석

○ '16 - '18 국고사업 예산편성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예정)
함께누리	2,150	2,067	2,350	4,200
체육진흥기금	-	-	570	560
계	2,150	2,067	3,490	4,760

※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한중일 미술교류전 등 기획공모사업 5억5천만 원 별도 진행

- 지원규모 증가 : 2017년까지 20억 내외로 지원되던 금액이 매년 30% 내외로 증액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존 지원 분야 및 규모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2018년도 사업유형별 지원결정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유형	사업예산	신청건수	신청금액	선정건수	선정금액
창작 활성화 지원	750	120	2,187	56	749
문화예술 향수 지원	800	160	4,324	45	801
배리어프리 제작 지원	200	11	203	2	28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400	127	3,952	24	572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200	18	1,329	3	200
국제교류 활동 지원	570	38	1,303	20	570
계	2,920	474	13,298	150	2,920

○ 2018년도 장애·비장애 예술가(단체) 지원결정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신청		선정결정	
	건수 (%)	금액	건수(%)	금액
장애인 단체/개인	326 (69%)	8,513	128 (85%)	2,299
비장애인 단체/개인	148 (31%)	4,785	22 (15%)	621
계	474	13,298	150	2,920

○ 2018년도 중복지원결과 제외한 지원결정 현황

(단위 : 건)

구분	지원신청	중복제거	선정	선정율
장애인 예술가	91	85	46	51%
장애인 단체	199	138	63	32%
비장애인 단체	147	126	22	15%
동호회	37	34	19	51%
계	474	383	150	

○ 2018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역별 지원결정 현황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신청 건수	187	73	17	13	31	7	11	17	11	32	0	8	11	24	15	9	8
선정 건수	76	26	3	3	4	0	3	5	3	6	0	1	4	5	4	4	3
비율	70%			30%													

○ 2018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분야별·장르별 선정결과 (총 150건)

(단위: 건)

사업유형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계
창작 활성화 지원	13	25	6	4	4	2	2	-	56
문화예술 향수 지원	4	6	6	2	14	5	4	4	45
배리어프리 제작 지원	-	-	-	-	-	-	2	-	2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1	2	6	4	5	2	3	1	24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	-	-	-	-	-	-	3	3
국제교류 활동 지원	-	6	1	1	9	1	2	-	20
선정건수	18	39	19	11	32	10	13	8	150

- 2017년에 지원되던 협업지원 및 조사연구 등의 지원사업은 우수한 사업성과 및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신청으로 2018년부터 폐지되었고, 배리어프리 프로그램도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저조한 신청으로 통폐합 필요
- 2018년부터 창작발표 지원의 중요성 대두로 향수 지원 분야와 분리하여 신청 받고 창작지원은 장애예술단체 및 개인만 신청 가능하도록 운영하였고, 인력역량강화 지원은 내용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다수여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분야로 통합하여 운영 중

- 동호회활동 지원은 타기관의 유사사업 상존 및 중복성, 독립적인 지원분야의 효과 및 타당성 부족 등으로 2018년 향수 지원 분야에 통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전문가-아마추어의 불분명한 구분 및 평가 시 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개선 필요
- 신청대비 선정비율 : 전체적으로 32%, 창작 47%, 향수 28%, 국제교류 53%이고,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향수 지원은 비장애예술단체의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선정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장애예술단체 선정율 : 비장애예술단체를 배제하고 장애예술단체(개인)의 신청대비 선정비율은 2017년의 경우 발표 및 향유지원은 50%, 창작활동지원은 37%, 동호회지원은 60%이었고, 2018년 창작활성화 지원은 47%, 동호회를 포함한 향수 지원은 39%, 국제교류활동 지원은 51%였음
- 사업 분야 및 장르별 선정비율 : 창작 분야는 시각 및 문학 장르에 신청하는 개인이 많으며(18년도 창작분야 지원건수 개인 77/120건 64%, 단체 43/120건, 36%), 향수 분야는 음악장르가 많으나 동호회 지원 건수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으며 전문예술활동 비중에는 변별력 없음. 국제교류는 시각과 음악 장르의 비중 매우 높음.
- 지역별 선정비율 : 2017년 신청 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5%, 지역 45%인데 반해 선정결과는 수도권 62%, 지역 38%였음. 2018년은 격차가 더 심화되어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은 신청비율은 6:4 정도였으나 선정결과는 7:3 정도였음. 수도권의 신청비율이 높고 사업내용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장애인구의 광역별 분포에 비해 서울 및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예술 활동이 저조함
- 장애단체 / 비장애단체 선정비율 : 창작 및 국제교류 이외의 사업유형에 비장애단체의 협업 및 참여를 받고 있으며 장애단체 중심으로 선정되나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업내용과 실적을 가진 비장애단체가 22건(150건 중)으로 15%로 선정됨
- 개인 / 단체 활동비율 : 2018년 지원 선정된 사업에서 비장애단체 및 동호회를 제외한 선정자 중 개인은 30%(46/150건), 장애인 단체는 42%(63/150건) 비율로 지원되었음 (2018년 서울문화재단 지원 선정율: 개인 69%(719/1048건), 단체 31%(329/1048건))
- 평균 지원액은 창작활성화 지원 13,375천원, 향수 지원 17,800천원, 국제교류 활동 지원 28,500천원이며, 창작활성화의 경우 상한액이 10,000천원인 개인 지원이 많아 평균액이 낮았으며 향수 지원은 동호회 활동 지원의 상한액이 10,000천원으로 평균액이 낮아졌음. 개인과 동호회를 제외한 단체의 평균 지원액은 창작지원은 26,235천원, 향수지원은 27,560천원임

□ 2017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평가내용

- 장애인 예술의 '확장성'을 꾀하는 것에 대한 고민,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접점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관심과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각 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작품성으로 승화시키는 **질적 도약**이 필요함. 그들만의 페스티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반추할 수 있는 이야기로서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바탕 위에서 예술적 성취가 이루어져야 함
- 장애인의 고유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2016년의 지적이 있었듯이, 장애 자체가 작업의 주된 언어로서 받아들여지는 기획과 고민이 필요함. 특히 장애인들이 가진 장애적 특성을 특별한 예술적 필터로 활용하여 그 가치를 **미학적으로 새롭게 변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비장애적 시선에 맞추어진 양식에 장애인들의 예술표현을 끼워 맞추는 긴장과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됨
- 많은 장애인 공연들이 **시설 면에서 열악한 극장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국립극장의 경우도 장애인의 접근성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됨. 이음센터의 경우 시설 면에서 장애인 공연자가 공연하기에 적합하며 특히 중증장애인 공연장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이 권장됨
- 2016년에도 제기되었듯이, 사업을 진행하는 참여자들의 **지인들이나 가족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전시 및 공연 홍보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온라인 홍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지적된 바 있었으나, 2017년 현장평가를 살펴보면 온라인상에서 사업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음
- 전시나 공연 등 사업 수행에 적합한 공간의 확보 문제를 비롯하여, **기획 및 운영, 연출, 현장 진행, 홍보 등 전문 인력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나 예산의 할애**에 대한 요구 역시 2016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제기됨. 아무리 예술적 수준이 높아도 이러한 뒷받침 없이는 폭넓게 확산·공유되기 어려우며, 장애인 예술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관객도 참여하고 싶어지는 행사가 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 비장애인들의 의례적인 공연과 전시에 장애인들이 몇 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나 또는 비장애인들의 공연과 전시에 장애인들을 이용하는 사업의 지양은 2016년에도 지적된 바 있으며, 과도한 의례적인 의전이나 사전행사가 배치되기보다는 **행사성 사업을 줄이고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꾀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창작과 발표, 교육사업의 개념이 모호하게 공존한다는 문제, 문화예술단체라기보다는 아마추어 수준의 동호인을 교육시켜서 무대가 올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외부 전문예술단체를 섭외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의 성과가 어디로 귀속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이러한 전문단체와 일반단체의 구분, **직접과 대행의 문제** 등은 꾸준히 고민되는 지점이며 방향성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

(2017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중)

□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방향

○ 개선방향

- **분야별 지원액 확대** : 신청건수 대비 선정율의 상승은 사업내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저하가 예상되나 저변확대의 측면에서 분야별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운영. 가장 많은 신청사업이 집중되는 창작, 향유, 교육 등 분야의 지원규모 확대
- **전문예술과 아마추어 활동 지원 구분** : 창작영역과 향수분야의 구분과 사업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됨. 다만 장애인의 예술 활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하되 심사 시 전문가 사례비, 출연료 등 자격 및 전문성에 따른 예산검토 항목 추가
-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고려** : 배리어프리 사업 지원은 폐지하고, 기존 사업계획서 양식에 수화통역, 문자통역, 장애인 접근성 등 장애인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내용 추가하여 심사 시 반영
- **창작활성화 지원 특성화 사업신설** : 새 예술 정책, 해외 사례, 평가보고서에서 반복되어 거론되고 강조되는 장애예술의 특성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장애예술을 특화할 수 있는 유망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집중육성하는 사업을 신설
-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확대** : 열악한 지역의 장애인 예술활동의 저변확대 및 기반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 공공주체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장애인지역문화예술센터(가칭)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개인 및 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의 거점으로 발전

○ **지원규모 증액** : 47억 6천만 원 (전년도 29억 2천 대비 18억 4천만 원 증액)

○ **분야별 지원사업 규모(안)**

(단위 : 백만 원)

분야	2018년	2019년	지원규모	증감
창작	창작 활성화 지원	창작 활성화 지원	1,000	250
		유망 예술프로젝트 지원	500	500
향유	문화예술 향수 지원	문화예술 향수 지원	900	100
	배리어프리 제작 지원	동호회 활동 지원	200	-
교육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600	200
국제	국제교류 활동 지원	국제교류 활동 지원	560	△10
지역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1,000	800
계			4,760	1,840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분야별 개요

○ 창작 활성화 지원

- 목적 : 장애인 예술가(단체)의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적 표현 권리 확대
- 지원분야 : 공연(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예술(회화, 조각, 사진 등), 문학(시, 시조, 소설, 수필, 아동문학 등)
- 지원대상 : 장애인 예술가 개인 및 단체 (비장애단체 및 개인 신청불가)
- 지원예산 : 10억원
- 지원규모 : 단체/개인(4천만원/1천만원)
- 주요 참고사항 : 신청서 상에 구체적 사업내용(기획의도, 대본, 악보, 추진계획, 세부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행사성 사업 지양, 참여자의 전문성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내역 및 이력, 기존 활동 증빙자료

○ 문화예술 향수 지원

- 목적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지원분야 : 장애인 대상의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공연, 시각예술, 문학)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 단체, 비장애인단체
- 지원예산 : 9억원
- 지원규모 : 최대 4천만원
- 주요 참고사항 : 신청서 상의 구체적 사업내용(기획의도, 대본, 악보, 추진계획, 세부프로그램, 관객모집계획, 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참여자의 전문성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내역 및 이력, 기존 활동 증빙자료

○ 동호회 활동 지원

- 목적 : 장애인 아마추어 동호회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향유 기회 확대
- 지원분야 : 공연(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예술(회화, 조각, 사진 등), 문학(시, 시조, 소설, 수필, 아동문학 등)
- 지원대상 : 아마추어 장애인 동호회, 비장애인 예술단체(장애인이 주요 참여자일 경우)
- 지원예산 : 2억원
- 지원규모 : 최대 1천만원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목적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운영, 장애인 예술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장애인 예술 활성화
- 지원분야 : 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교육, 실습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교육 프로그램 연구, 교안개발 등), 장애인 예술가 육성
- 지원대상 : 장애인 예술단체, 비장애인 예술단체
- 지원예산 : 6억원
- 지원규모 : 최대 4천만원
- 주요 참고사항 : 신청서상의 구체적 사업내용(교육목적 및 기획의도, 프로그램 구성안, 강사진 프로필, 세부프로그램, 교안개발 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 강사 등 참여자의 전문성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내역 및 이력, 기존 활동 증빙자료

○ 국제교류 활동 지원

- 목적 : 장애인 예술가의 해외교류 및 예술 활동 발표 기회 제공을 통한 역량강화
 - 지원분야 : 국외에서 진행되는 예술교류 및 발표 활동
 - 국외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제작 및 발표
 - 국외에서 진행되는 작품 활동(공연, 전시, 페스티벌 등)
 - 지원대상 : 장애인 예술가 개인 및 단체, 비장애인 예술단체
 - 지원예산 : 5.6억원
 - 지원규모 : 단체/개인(5천만원/1천만원)
 - 주요 참고사항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공동 사업추진 계약서, 초청장 등)
-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업임

○ 유망 프로젝트 지원

- 유망 프로젝트는 장애예술의 독특한 감수성과 표현의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시도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예술의 발전과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육성하는 사업임
- 기존의 지원방식인 단체나 개인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과 기획자를 통해 준비되고 제안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계별 지원방식을 고려하고 있음

- 또한 단체나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지원사업은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원래 사업목표와 성과간의 간극과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설계시 세심한 검토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 직접 지원하는 단체지원은 안정적으로 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레퍼토리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전적인 예술적 협업이나 다양한 실험적 시도가 어렵고, 아직까지 내용적 다양성 면에서나 수적인 면에서 많지 않은 소수의 기존단체에 의존하게 되어 목적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음
- 기획자 등의 매개를 통한 작품발굴 지원의 장점은 국내-국외 예술가 협업, 타 장르간의 협업, 융복합 프로젝트 등 동시대 예술의 경향이나 새로운 형식적 실험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려운 점으로는 우수한 장애예술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획자의 수가 적고, 사업의 과정에서 협의와 결정의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임.
- 예술단체 특성상 기획력 및 네트워크가 약해 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국제아트마켓(예: TPAM 동경공연예술미팅) 등에서 이러한 구조로 새로운 경향의 창작 작품을 개발함
- 따라서 유망 프로젝트 지원은 사업을 단계별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사전연구 및 개발,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사업성과의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과 함께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유망 프로젝트 지원 1안 (단체 직접 지원 방식)

- 사업명 : 장애예술 유망프로젝트 집중지원사업 (가칭)
- 목적 : 장애예술의 대표적 예술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예술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모색하는 창작 지원
- 지원분야 : 공연, 시각예술 등
- 지원신청 : 장애인 예술단체 (장애-비장애 예술가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체 및 프로젝트 팀 신청가능)
- 지원규모 : 최대 1억원
- 지원기간 : 2년~3년(평가를 통해 지속지원 및 지원금 조정)
- 지원예산 : 5억원
- 지원내용 : 예술프로젝트 개발 및 발표(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역량강화, 창작워크숍, 연수, 창작발표 등 포함하여 지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국내외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하며 전문가의 의견 및 협의에 따라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주요 참고사항 : 프로젝트의 구체적 사업내용(기획의도, 추진계획, 연도별 세부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 행사성 사업 지양, 참여자의 전문성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내역 및 이력, 기존 활동 증빙자료

○ 유망 프로젝트 지원 2안 (기획자를 통한 사업개발 방식)

- 사업명 : 장애예술 기획창작 공연프로젝트 발굴 지원(가칭)
- 목적
 - 장애예술 기획자와 전문가를 육성을 통해 장애예술을 특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 장애/비장애 및 여러 분야의 창의적인 협업을 촉진하여 장애예술의 정체성과 예술성을 강화하는 공연작품 개발
- 사업내용 : 선정된 기획자(프로듀서, 큐레이터 등)가 작품을 기획하거나 발굴하여(1년차) 단계별 제작(2년차)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 및 확산(공연 및 유통)
- 지원분야 : 공연분야(연극, 무용, 음악, 다원 등)
- 작품선정위원회 : 국내외 전문가 5~7인으로 구성하고, 기획자 및 예술가를 발굴하고 작품심사, 컨설팅, 평가 등 수행
- 지원규모 : 총 3억 내외(프로젝트당 지원규모 상이하되 총 10건 이내)
- 지원내용 : 국내외 작품 창작 및 제작을 지원하고 최대 2년에 걸쳐 작품개발 및 쇼케이스 제작
- 추진과정 : 창작작품 선정위원회 구성 - 기획자 추천 및 공모 - 기획자 선정 - 장애/비장애 창작 프로덕션팀 발굴 및 구성 - 작품 개발 및 제작 - 쇼케이스 - 2차 작품 개발 및 작품 완성 - 국내외 유통 및 장애예술 페스티벌 공연
- 기대효과
 - 장애예술의 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신규예술가 및 단체 발굴 및 지원
 - 동시대의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융복합 프로젝트의 창출 및 촉진 가능
 - 국내외의 원활한 교류 및 협업을 통해 국제적인 활동의 장 마련

○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 목적 : 지자체 및 문화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장애인 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특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예술현장 구축
- 지원내용 : 지자체, 문화기관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다년간 지원사업이며, 3~5년 간의 매칭펀드 조성을 통한 협력 및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별 장애인문화예술 거점 구축 및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광역단위 문화기관 및 단체
- 지원규모 : 총 10억원
- 기관별 역할분담
 - 장문원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전문컨설팅단 용역 및 운영,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심의 및 평가
 - 수행기관 및 단체 - 지자체 매칭펀드 추진 및 운영, 공간구축 및 사업 운영, 지역장애인예술센터(가칭) 운영
- 사업방침
 - 광역단위의 지자체, 문화재단 등 지역주체를 선정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예술 지역센터(가칭)로 개발후 지역 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 매칭사업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유헴공간을 활용한 거점 확보 및 개보수 등은 지역주체가 담당하고 장문원은 사업비 및 운영비 중심으로 지원
 - 공간운영은 레지던시 및 연습실 등 창작공간, 공연 및 전시 발표공간, 교육프로그램 운영공간, 커뮤니티 센터, 운영사무실 등의 사업으로 구성
 - 사업내용은 연구개발, 기획사업, 교육사업 등으로 구성하고(예 : 장애인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연구, 장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 장애예술 특성화 기획사업, 장애예술 기획자 등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등) 지역여건 및 특성화의 방향에 필요하도록 수립하여 추진
 - 장문원의 역할은 전문가 컨설팅, 국내외 우수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운영,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으로 사업안정화를 위한 관리 및 지원 역할
 - 2022년까지 추진계획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장문원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예산확보 및 사업관리 방안 마련

□ 사업 운영

○ 지원신청 : 기존 신청기준 유지

- 장애예술단체 기준 : 대표자가 장애인이거나, 참여자의 30% 이상이 장애인
(수정안 : 대표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장애예술활동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
- 신청가능 사업
 - 장애예술단체 : 모든 사업 신청가능
 - 장애예술가 : 문화예술 향수지원을 제외한 모든 사업 신청가능비장애예술단체 : 문화예술 향수지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유망프로젝트 지원 (창작지원 및 국제교류활동 분야는 신청불가)
- 지원신청 가능건수 : 1단체 당 최대 3개 사업 신청 가능, 최대 2개 사업 지원
- 지원신청서 개선 : 장애인 접근성(배리어프리) 항목 추가, 참여자(예술가) 활동이력 작성란 추가

○ 심의 운영

- 심의 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3~5인의 심의위원 구성, 신청건수가 적은(10건 이내) 분야의 경우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으로 통합 운영
- 분야별 예술전문가 30여명의 심사위원 풀 구성 및 운영, 장애인 및 복지 분야 전문가 포함
- 심의방법 : 서류심의 중심, 필요사업 인터뷰심의(2018년 심의의견 반영)

○ 평가

- 장르별 특성, 장애인 감수성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구축, 평가지표로 활용(2019. 2월 완료)
- 복수의 전문가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제도 운영, 평가결과 5등급으로 차년도 사업에 환류일괄적 평가결과 적용보다는 심의시 참고사항으로 제공, 사업의 전문성은 출연료, 사례비 등 지원규모에 중요요소이므로 적용예정(전문단체, 동호회 구분하여 신청 필요)

○ 지원사업 교육 : 정산 교육, e나라도움 교육

2019년 장애인 문화 예술 지원사업 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토론

황상훈 (기분좋은 QX 대표)

배은주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이사장)

김지수 (극단애인 대표)

변순영 ((재)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토론 1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

황상훈 (기분좋은 QX 대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설립되어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방향과 현장의 고민을 밀도있게 다루게 되면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밑그림이 조금씩 잡혀가는 모양새다.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방향으로 제시된 5가지 - 분야별 지원액 확대, 전문 예술과 아마추어 활동 지원 구분,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고려, 창작활성화 지원 특성화 사업 신설,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확대 - 는 전체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의 현재 모습에 변화를 주어 장애인 문화예술의 미래 전망을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설정으로 보인다.

우선, ‘분야별 지원액 확대’는 장애인 예술에 대한 기회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2018년도 함께누리 사업 현장평가를 다니면서 느낀 점 중의 하나는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예술가(단체)에게는 조금 더 나아지고 잘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마냥 예술 활동을 하는 기회의 전부가 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장애인 예술은 비장애인 예술에 비해 공적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공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 높은 분야이다. 질적 성장에 대한 여러 장치를 함께 두면서 장애인 예술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한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소액다건 지원사업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18년도 지원사업 선정율은 31.6%로 낮은 편에 속하고, 평균지원금은 19,466천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협력형사업(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중 대표적인 소액다건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경우 광역단위별 선정율은 23.4%~75.1%으로 대부분 지역이 40%~50% 정도이고, 평균지원금은 4,853천원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의 25% 수준에 불과하다.¹⁾ 사업초기부터 나눠먹기식의 소액다건 유혹에서

1) 2013년을 기준으로 재가공, 2015, 지역협력형사업 백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벗어난 진일보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설계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문예술과 아마추어 활동 지원 구분’은 비장애인 예술에서는 이미 정리가 된 문제로 볼 수 있다. 갈수록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아마추어 활동이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인 점은 분명하나, 창작과 향유를 구분하고, 양자의 사업목표를 차별화하는 것은 지원정책에서 당연한 기준일 것이다.

세 번째,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고려’는 장애인 예술 활동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환경요소로서 그 의미가 있다. 장애인 예술에 있어 배리어프리는 어느 사업이던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 연습, 연주, 발표, 교류 등 예술활동의 전 과정에서 언어, 이동, 매체, 인력 등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증대하는 보조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예술 도구, 시설 등 장애인 예술 편의수단들의 개발이 확대되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도 필요하다.

네 번째, ‘창작활성화 지원 특성화 사업 신설’의 경우는 그동안 다소 두드러졌던 복지적 관점의 장애인 예술 지원을 수월성을 고려한 창작중심으로 전환하는 시의적절한 지원방향이다. 장애인 예술의 당사자성을 담아 세상과 공감할 수 있는 창작품, 인간승리의 감동을 넘어 예술성에 대한 감동을 주는 창작품 등의 탄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있는 예술가(단체)를 육성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 제고 노력이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고 공감의 확산까지 나아갈 것이다.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는 유망프로젝트 지원은 단체 직접지원 방식(1안)보다는 기획자를 통한 사업개발 방식(2안)이 훨씬 개방적이어서 혁신적 과정과 결과를 낳기에 적합할 것이다.

향후에는 장애인 전문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성 지원보다는 단체 전문성 제고, 역량 강화, 체제 구축 등을 지원하는 트랙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확대’는 전국적으로 장애인 예술 창작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광역단위의 장애인예술 지역센터 설치를 통해 장애예술의 지역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기초단위에서 장애인예술가의 교류 거점공간을 지원하는 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공간 조성 및 민간공간 인증 지원)

추가적으로 지원사업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진 장애예술가 공공발굴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오디션을 통해 신진예술가를 발굴 한 뒤 → 역량강화과정을 제공하고 → 이를 통한 창작품의 성과발표로 이어지는 사업유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접근성이 잘 보장되어 있는 장애인 예술가 레지던스(미술, 문학 등)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원사업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평가이다.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평가결과의 환류이다. 차년도 선정시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평가를 장애인 예술단체의 성장 장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평가 후 낮은 등급의 단체(4,5등급)는 차년도에 별도의 역량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다음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창작중심의 예술적 수월성, 전문성, 완성도가 필요한 시기로 진입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성, 협력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한발 두발 전진할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장애인 예술은 기회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폭넓은 향유의 토대에서 창작의 우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안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토론 2

장애인 문화예술의 엘 시스템아(EI Sistema)를 꿈꾸며

배은주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이사장)

□ 시작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16일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를 발표했다.

우리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에 앞서 현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숙지하고 그 목적과 결과에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도출해내야 함이 마땅한 것 같아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기존의 정부가 문화융성을 표방하였다면 지금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의 고유한 가치들이 사회 안에서 구현될 수 있으며 그로인해 문화예술로 국민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현재 문체부의 기본 문화예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며 장애인모두가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람이 있는 문화를 정책으로 정책기조이며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일컫는 사람이 있는 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답변을 도출해놓고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이다. 사람이 있는 문화 9대 의제 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아래에 정리해보았다. 이 내용들을 숙지해보면 우리가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정책들을 수립할 때 그 목적의 방향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정답이 보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1.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로
2. 젠더불평등에서 젠더평등의 문화로
3. 4차 산업 혁명의 인간소외가 아닌 인간 감성의 문화로

5. 일중심에서 쉼이 있는 문화로
6. 갈등과 혐오에서 협력과 다양성의 문화로
7.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문화로
8.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여기서 가장 장애인문화예술에 부합된 것이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문화로” 목적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이나 성과 혹은 결과물에 치중하여 한사람의 예술가, 또 그 한사람의 예술가가 포함된 예술단체의 존립에 영향을 끼친다거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혹은 문화예술의 활동에 저해하는 방향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경쟁이나 효율보다 사람이 먼저인 문화로의 방향과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장애인문화예술의 지원의 법적근거

장애인 문화예술의 시작은 <장애인 문화예술접근성 확대사업>이 편성되면서부터이다. 2008년에는 정부 차원의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국고에서 처음으로 5억 원을 지원하여 독립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2010년에는 복권기금사업에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이 별도 분리되었고 국고사업은 <장애인 문화예술향수사업>으로, 복권기금은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다가, 2014년부터는 국고사업으로 일원화되어 장애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양 효 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 발제문 중)** 그렇다면 장애인문화예술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들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내에 장애인문화예술지원에 관련한 주요 법안들이 있어 아래 정리해보았다. 먼저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의 법적인 근거는 제3조를 우선 기초로 할 수 있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 법 조항을 해석하면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기 위해 재원을 적극 마련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사업의 법적인 근거에 의해 목적은 장애인예술 및 단체들을 권장, 보호, 육성하기 위함이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2-3년 26억원에 예산으로 지방

의 재단법인, 복지시설 또는 일단 예술단체와 협업사업을 통해 발전에 치중한 것은 열악한 장애인문화예술의 권장과 보호와 육성도 되지 못함은 물론 발전에 초점을 맞춘 시행착오적인 기금 운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폭넓은 예산으로 권장도 하고, 보호도 하고, 육성도 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에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량을 키우라는 것과 같은 뜻인 것이다. 장애인예술단체가 비장애인 단체와 협업 몇 번 한다고, 대단한 역량을 갖춘 기획사나 단체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장애인 예술가를 일부 역할을 주고 중요한 주연이나 핵심적인 역할을 비장애인 예술가가 진행하는 통 큰 행사 몇 번 치러낸다고 장애인문화예술이 발전된다고 되거나 혹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둥이 흔들리는 건물에 외벽 새 단장만 하는 격인 것이다.

□ 형편성있는 기금 배분의 원칙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목적인 장애인 문화예술의 권장과 보호와 육성이라면 그에 맞게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는 권장해야 함이 맞고 풀뿌리 동호회는 보호해야 함이 맞으며 전문단체는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개인과 단체 전문예술가와 아마추어 예술가 임의단체와 전문비영리법인에 맞추어 형평성 있는 기금의 상한선을 정해야 하며 그 기금을 기금운용법에 맞춰 배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향수사업 기금이 이관되어 온 이후 그 금액에 상한선이 단체에 역량이나 성격, 자격에 관계없이 큰 폭으로 지원기금의 상한선이 요동을 쳤던 것 같다. 주변에 10년 이상 어렵게 극단이나 예술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던 장애인예술단체가 장애인문화예술 향수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단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거나 사무실을 문을 닫게 된 단체도 생겨났던 것을 비추어볼 때 10년 이상 단체가 유지되고 있는 예술단 및 예술단체는 비록 제안서가 부족해도 보호해야하는 목적에 의거하여 선정에서 타락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와 향유 전문가와의 컨설팅등의 지원을 별도로 해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보호부분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사업이 가지고 있는 본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것이다.

- 공고안 개선방향

1. 장애인 당사자로 심의위원의 비율조정 (30%이상)
2. 전국단위에 재단법인, 복지시설, 아트센터, 화랑 등은 사업 신청자격 제외

3. 사업 종료 후 평가시 A, B, C, D 등 평가기준을 두어 전년도 B이상 받은 단체는 당해 연도 사업 심사 시 가산점 부여제도 도입
4. 분야별 전문가가 분야에 맞는 사업을 심의하는 제도 도입(음악분야라도 클래식 분야의 전문가가 연극이나 뮤지컬 또는 대중예술분야를 심사하게 될 경우 심사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음)
5. 신규단체 선정 시 금액 기준안 마련 (유망프로젝트지원사업 혹은 장애인전문예술단체 육성사업 일 경우 제외)
6. 창작 활성화 사업일 경우 비장애인 단체의 장애인 구성원의 비율상향 조정 (30%→40%)

□ 유망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문제점

○ 유망 프로젝트 지원 1안 (단체 직접 지원 방식)

- 사업명 : 장애예술 유망프로젝트 집중지원사업 (가칭)
- 목적 : 장애예술의 대표적 예술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예술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모색하는 창작 지원
- 지원 분야 : 공연, 시각예술 등
- 지원신청 : 장애인 예술단체 (장애-비장애 예술가로 구성된 컨소시움 단체 및 프로젝트팀 신청가능)
- 지원규모 : 최대 1억 원

○ 유망 프로젝트 지원 2안 (기획자를 통한 사업개발 방식)

- 사업명 : 장애예술 기획창작 공연프로젝트 발굴 지원(가칭)
- 목적
 - 장애예술 기획자와 전문가를 육성을 통해 장애예술을 특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 장애/비장애 및 여러 분야의 창의적인 협업을 촉진하여 장애예술의 정체성과 예술성을 강화하는 공연작품 개발
- 사업내용 : 선정된 기획자(프로듀서, 큐레이터 등)가 작품을 기획하거나 발굴하여(1년차) 단계별 제작(2년차)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 및 확산(공연 및 유통)
- 지원분야 : 공연분야(연극, 무용, 음악, 다원 등)
- 작품선정위원회 : 국내외 전문가 5~7인으로 구성하고, 기획자 및 예술가를 발굴하고 작품심사, 컨설팅, 평가 등 수행
- 지원규모 : 총 3억 내외(프로젝트 별 지원규모 상이하며 총 10건 이내)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비롯하여 지방의 문화재단에서는 “상주단체육성공모”라는 것이 있다. 발전 가능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열악한 예술단체를 중장기 차원에서 육성한다는 취지이며 실제로 이 상주단체 육성공모를 통해 예술단체를 인큐베이팅하고 있다. 유망 프로젝트 사업은 본래 스타트업 또는 연구 사업이나 기술 분야에서 신규성과를 낼 때 진행하는 방식이

므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장애인 문화예술 실정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육성한다면 프로젝트만 남을 것이다. 이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는 밴드 육성 프로젝트, 창작뮤지컬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투입한 예산대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는 역량 있는 전문예술단체들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예술단체를 키워내야 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비장애인 예술분야에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상주단체 육성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전문 예술단체 및 극단 등을 인큐베이팅 해오고 있으며 그 괄목(刮目)할만한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상주단체 육성공모야말로 운영비와 인건비등의 문제로 혹은 기획적인 문제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장애인 예술단체에게 꼭 필요한 지원방식인 것이다. 장애인 문화예술의 독특한 감수성과 표현의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시도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예술의 발전과 도약을 이루어 내는 것이 유망 프로젝트의 목적이라면 상주단체육성 공모는 장애인 전문 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감성을 바탕으로 아낌없이 창작혼을 일깨워 장애예술인들의 예술적 능력을 넓힐 수 있는 능동적인 면이 크게 증가할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단체만의 특성을 살려낸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심사를 하면 될 것이다. 다만 장애인문화예술 실정과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속발전가능한 단체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전문예술단체 지원육성공모**”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함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전문예술단체 지원육성공모”는 순수 장애인 예술단체만 지원하도록 하여 법인단체는 제외시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주 단체 육성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광명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세종문화예술재단	서울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하남문화재단
강남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하남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춘천시문화재단

□ 마치면서

엘 시스템아(EI Sistema)효과란 말이 있다. 베네수엘라의 어느 도시, 알코올중독자가 대부분인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빈민가 차고에서 빈민층 청소년 11명에게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José Antonio Abreu) 박사가 악기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한 엘시스템아 효과는 35년이 지나 현재 190여 개 센터, 26만여 명이 악기를 배우게 되었으며 그 도시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하기 시작하여 “엘시스템아 문화예술사회 운동”으로 부르게 되었다. 베네수엘라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협동·이해·질서·소속감·책임감 등의 가치를 심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장애인 문화예술계에도 엘시스템아 효과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도 발달장애인 화가가 30센티의 자를 가지고 다양하고 독특한 미술세계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청각장애인 무용수가 음악의 선율에 맞추어 역동적인 춤사위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장애인 문화예술이 가진 고유한 수월성에 도달하여 주위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날이 꼭 오고야 말 것이다.

토론 3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한 제언

김지수 (극단애인 대표)

장애인 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시행 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에 창단한 극단 애인의 대표로 활동 하고 있는 토론자의 의견은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가운데 공연 예술을 기반으로 한 내용 중심으로 논의 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지난 10여 년 동안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을 통해 연극 활동을 해 오면서 갖게 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합니다.

해외 장애인 문화예술 경험 기회 확대

장애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작과 향유의 두 가지 측면이 함께 변화 발전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창작에 있어서 장애인 문화 예술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지원과 장애인 문화 예술을 이해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연출과 협력 예술가 육성 및 장애 예술가 파견 기회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혹은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된 독특한 경험이 예술적인 표현 혹은 미학적인 관점에서의 예술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애를 극복의 대상이나 장애인들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 불굴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장애 예술의 소재라고 여기는 전반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획, 연출, 장애 당사자들이 있는 한 한국의 장애인 문화예술은 여전히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거나 비장애인의 예술을 동경하는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본 극단의 경우도 뇌병변 장애인들의 불규칙 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근육의 긴장과 이완 그 시차 속의 미세한 안정과 떨림, 시차가 다른 언어와 반응, 건반위의 손가락처럼 춤추는 휠체어 의 움직임, 발달장애인들의 유연한 몸과 독특한 사물이해 방식 등이 장애 예술의 기본 영감이고 그것을 통한 개별적이고 특별한 경험이 장애 예술의 수월성임을 개발 하고자 하는 배우와 연출가들을 만나 함께 고민해 왔지만 다양한 방식의 문화 예술을 보고, 듣고,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늘 한국의 정서와 문화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세계의 장애 예술 활동을 경험 할 수 있는 축제와 예술제 등에 다양한 장르의 장애예술가 및 연출가의 파견 혹은 참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 예술에 대한 미학적인 접근과 표현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한 장애예술 당사자와 연출, 혹은 기획자들이 늘어나고 그들과 함께 작업 하는 장애 예술인들의 기회가 확대될수록 한국의 장애예술의 다양성과 예술적인 수준이 함께 성장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작과 향유, 모두를 고려한 폭 넓은 배리어프리 지원

공연, 전시를 기획하는 예술가들의 접근성을 위한 예산 편성을 통해 기존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리모델링하지 않고도 접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원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작자로서 필요한 보조기구, 공연장, 무대, 분장실, 화장실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가변형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 등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서울 시민연극 축제에 초청 공연 당시 편의시설을 고려하지 못한 주최 측에서 본 극단을 섭외하였으나 이후 편의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무대 제작 팀에서 외부로 연결된 계단에 경사로를 만들고 도르레를 장착하여 이동식 리프트를 제작 설치하여 공연 및 관객의 편의시설을 마련하였던 경우나 미아리 예술극장의 이동식 경사로 설치 등의 사례와 같이 기존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창작자 및 향유권을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극장이나 연습실 관계자들에게 창작 장애 예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가능성을 알리고 이후 장애예술가들의 접근성이 향상 되는 경험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장애인 관객을 고려하여 서울연극센터나 좋은 공연 안내 센터 등에 다양한 형태의 이동식 경사로 구비와 수어통역사 배치 및 활동보조인 들을 배치하여 장애인 관객이 신청하면 극장이나 혹은 공연기획 팀과 연계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적인 가능성을 위한 찾기 위한 중기 지원 정책 필요

단체가 아닌 개개인의 예술적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중기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유망 프로젝트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개개인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찾고 시도해보는 가운데 자신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단 지원 사업과 같이 동호회 지원과 창작활성화 지원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원으로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들이 공연을 전제로 한 단기적인 지원을 배제하고 일 년여의 기간 동안 꾸준히 새로운 시도와 융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멘토와 함께 연구 하면서 발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활동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편성입니다.

현실에 맞는 평가 방법과 기준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서 설문조사를 시행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연이 크고 작게 지원을 받지만 공연을 볼 때마다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는 것은 장애인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설문조사가 관객들의 반응과 성과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 매번 설문작성을 요청하는 것은 관객들에게 장애인 문화예술 작품 관람에 대한 또 다른 의무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번거롭고 회수율과 변별력이 낮은 설문 조사 외에 일부 관람객의 인터뷰나 한 줄 후기 등 다양한 형식의 평가방법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4

장애인 예술의 확장성과 차별화, 지역과의 점점 찾기

변순영 ((재)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1

장애인 예술에 대한 편견타파

최근 몇년간 지자체의 장애인 예술에 대한 조례 제정(인천광역시 2017.6 제정)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사업 수립 및 예산 책정, 국가의 소수자 지원정책, 예산 수립 및 정책 확산 등 어느때보다 활발한 정책 확산의 움직임이 간파됨.

그러나 정작 지역 예술 현장에서 일반 예술지원정책이 주류이며, 장애예술지원의 변화는 예산 추가편성에 따른 또하나의 새로운 공모지원사업 생성, 평면적 시행 한계

지역에서 접하는 장애인 예술은 “비장애인들의 의례적인 공연과 전시에 장애인들이 몇 명 참여하는 프로그램들 또는 비장애인들의 공연과 전시에 장애인들을 이용하는 사업”, “문화예술 단체라기보다는 아마추어 수준의 동호인을 교육시켜서 무대 올리는 경우” 및 “외부 전문예술단체를 섭외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공고한 사회적 관습과 관념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리적 충격과 같은 ‘사건’이 필요함.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불식되는 것이 아니라 ‘타파’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사건’이 일어나야 함. 사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바로 ‘사람’과 ‘구조’임.

장애인 예술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사람’ 즉 ‘지원신청주체’의 역량강화 또는 매개 혹은 촉매자, 기획자의 역할을 하는 전문인력의 협소함 극복 필요.

‘구조’적 측면에서 예산은 증액편성, 긍정적이나 이를 실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지원정책의 현장 공감, 지원시스템 및 정보화, 접근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 미흡. 장애인 예술활동 지역 거점 거축 등 지역확산 정책 실행을 통해 장애인 예술의 지역사회와의 점점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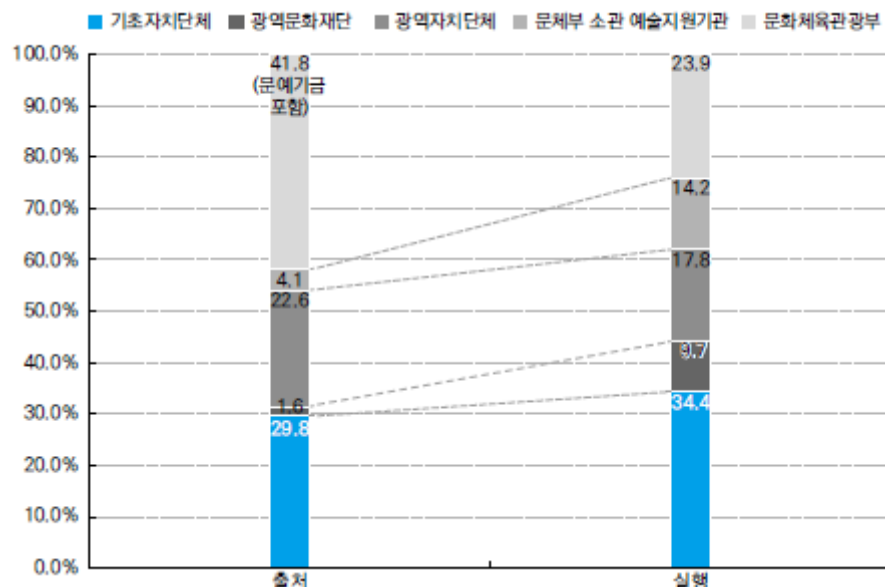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정/개정 구분
1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장애인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제1032호	2012.4.27	제정
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4253호	2013.7.1	제정
3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046호	2013.12.20	제정
4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096호	2013.12.30	제정
5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010호	2014.10.2	제정
6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4787호	2014.10.21	제정
7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229호	2015.9.30	제정
8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134호	2015.12.30	제정
9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583호	2016.3.16	제정
10	전라북도	전라북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4287호	2016.6.17	제정
11	경상북도	경상북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3796호	2016.7.11	제정

〈그림 1〉 전국 장애인문화활동 지원 조례(2017.01), 한국장애예술인협회

2 중간지원조직의 체력 증진 및 실질적 역할 제고 방안

Q1. “2018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역별 지원결정 현황(발제2, 오세형)”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신청 대비 선정비율의 격차가 큼. 장애인구의 광역별 분포에 비해 서울 및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예술 활동이 저조

⇒ 지역 확산 방안 단계 설정에 앞서 기존 지역의 공공 중간지원조직(문화재단 등)의 해당 분야 역량 강화 및 역할 수행 여건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



〈그림 2〉 예술지원 예산의 출처와 실행 비중, 「2014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과 광역문화재단은 자체 재원보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된 재원규모가 훨씬 큰 비중을 보임. 이러한 구조는 예술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집행보다 중간조직을 통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말해줌. 그러나 이는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사업 이양이 아닌 재원 교부이므로 이를 토대로 예술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개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문체부 소관 예술지원기관과 광역문화재단의 실행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점은 예술 지원에서 이들 기관들의 실질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주목해 볼 수 있음. 관건은 실질적 역할 만큼 기관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단순한 전달자의 지위를 넘어 예술과 문화 생산의 플랫폼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됨.

Q2. “2018년도 사업유형별 지원결정현황(발제2, 오세형)에서 최다 신청건수 사업유형은 ‘문화예술 향수 지원’이며, 그 다음 순위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유형 또한 창작 유형보다는 향수 지원 유형에 보다 연관성이 있다고 봤을 때, 전체 사업유형 중 유사 향수지원 유형은 전체 사업 중 60% 이상임. 현재 장애인 예술 현장의 반영. 여전히 수혜형, 향수형 사업에 머물러 있는 현장을

극복하고 창작 활성화 지원을 통한 장애인 예술 특성화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 지원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선부르게 현장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한 섬세한 사업기획과 지원제도 수립전략이 필요. 이전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중앙 주도적 지역 전파 방식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 있나?

중앙의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 지자체 사업이관 → 중간지원조직(광역문화재단) 사업실행

단선적, 평면적 사업실행구조를 입체화, 다변화 시키기 위한 기획적 개입 장치 마련

3 장애인문화예술 지역 확산을 통한 지속성 및 기반 확보 방안

“2019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중 “(신규)유망예술단체 집중 육성”과 “(확대)지역문화예술 거점 지원”은 창작지원분야의 선택과 집중 방식 도입, 지역문화시대를 맞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본격적인 지역 확산 정책 추진

“장애인문화예술의 창작활동 증진을 위해 전문단체 육성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와 “장애인 예술활동의 지역 확산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방식, 지원체계는 무엇인가” 명제 제시(발제1, 양효석)

- ⇒ 우리나라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은 장애인체육의 한 부분으로 출발, 장애인 향유정책을 중심으로 발전(양효석), 일반 문화예술지원과 달리 처음부터 향유정책이 중심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옴으로써 비장애예술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향유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형태가 지원사업의 주류를 형성해왔다는 한계 지적
- ⇒ 향유의 진작은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이루어짐” 주장은 창작 지원에서 수월성,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향유의 질적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우수성 증진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필요. 그렇다면 장애인예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권에서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하드웨어, 사회적 배려 등등 우리사회 곳곳의 배리어프리 제도의 현실이 어떠한지 직시해야 함.

장애인예술정책은 앞서가고 있으나 아직 지역사회의 여건은 준비가 미흡하다는 현실을 아프게 직시해야. 2019 장애인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 방향으로 사업의 성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 장애인 예술의 접근성 확대라는 큰 과제를 사회제도, 관습 등 전방위적인 구조적 문제로 도출하고 분석하면서 전략을 도출해 내야 함.

일반 예술정책현장에서 지원예산은 증액되어 현장에 지원되고 있으나, 창작주체와 향유주체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예술정책 구조의 한계에 직면. 최근 생활예술정책의 지역 확산에 따라 지자체별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지정, 관련 조례 제정, 중앙과 지역의 예산 매칭 등을 통해 막대한 예산이 일반 시민 동아리, 생활문화 관련 사업에 투입되고 있음.

최근 예술지원정책 논의에서 ‘국민으로서의 예술가, 향유자로서의 예술가, 교육의 주체이자 대상인 예술가, 노동자이자 소비자인 예술가, 생활인으로서의 예술가, 장애인으로서의 예술가 등 다면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모델’ 논의가 활발함. 이는 행정조직에서 칸막이식 업무분장과 경직된 지원방식을 넘어서는 수평적, 횡단적 행정 혁신이 수반되어야 하며, 나아가 문화, 체육, 관광정책 내에서의 통합적인 지원 패키지 서비스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권리로서의 지원에 대한 관점, 이를 통해 지원체계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에서의 창구를 최소화하자는 논의, 아직 시작단계. 이러한 실험을 장애인예술지원정책에서 실현방안을 모색해본다면, 일반 예술지원정책설계 작업이 보다 입체적 방안 도출이 가능할 것임. 장애인 예술가 맞춤형 지원 패키지 서비스라면 일반 예술가 또한 맞춤형 지원에 포괄될 수 있기 때문.

관건은 장애인 예술지원의 선택과 집중, 지역 확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지원행정조직의 경직성과 보수성을 장애인예술생태계 현장에 탄력적으로 맞출 수 있는가?

예술창작 지원과 예술인 복지는 다른 맥락에서 다뤄져야 함. 장애인예술지원사업에서 흔히 마주하는 장애인직업연수 지원 성격의 프로그램들의 관점 전환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사람’중심, ‘장애인예술가’ 중심 지원정책 및 사업 개발 방안과 이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유연성, 탄력성, 협업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지역의 지원조직(문화재단 등)을 거점화할 때, 지역과 중앙, 장애인예술 현장과 어떻게 ‘연결’하고 그 끈을 유지할 것인가? ‘연결(link)’을 통해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인가?

여전히 유효한 질문, 지원인가? 지지인가?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발행인 안중원
발행일 2019년 1월
발행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12(동숭동, 이음)
<http://www.i-eum.or.kr>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 경성문화사

© 2019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본 안내서는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60-9700

